



# 끊이지 않는 게스트하우스 성범죄

### 안전책임 관리자·직원이 여성투숙객 상대 범행 시행 3년째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걸들아

한정민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살인사건 이후에도 제주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노린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관수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0일

만취 상태의 투숙객인 B(20·여)씨를 도와주는 척하며 객실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의 친구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에게 끔찍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은 한정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기에 이뤄졌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로 일하던 한정민은 지난 2018년 2월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

의를 받았다. 한정민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그해 2월 14일 충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 이후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해 6월 전국 처음으로 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40대 C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쯤 홀로 여행을 와 투숙한 D(20대 후반·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D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 한데 이어 나흘 뒤

또 다른 투숙객 E(30대 초반·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C씨의 선고공판은 8월 20일이다.

이들 세 사건의 공통점은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또는 직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시행 3년째를 맞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여전히 걸들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4400여개 농어촌민박 중 안전인증을 받은 곳은 200여곳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하다.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임차해 운영하는 것들이다보니 설치 비용 부담에 인증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역대 최장 장마 내일 끝... 폭염 본격

### 49일로 관측사상 최장 기상청 "28일 비 내린후 본격 무더위 시작될 듯"

제주지역의 올 장마는 기상관측 이후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28일 장마전선이 물러가면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C 이상인 열대야와 낮 최고기온이 30°C를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다.

2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부터 28일까지 30~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와 산지 등에는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중기예보를 보면 29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비 예보 없이 구

름 많은 날씨가 이어진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1973년 장마 관련 통계 작성후 가장 빠른 6월 10일 시작된 장마는 역대 가장 길었던 1998년의 47일(6월 12~7월 28일)보다 이를 더 많은 49일로, 장마 관련 기록을 줄줄이 경신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장맛비로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더위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29일부터는 열대야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연일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장맛비가 일시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8월부터는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카니발사건 가해자 보석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제주 카니발사건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카니발사건의 가해자인 A(34)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도 조천읍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운전자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감물들이기 전통염색체험 지난 25일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민속촌을 찾은 관광객들이 감물들이기 전통염색체험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선장 흥기로 쪼른 외국인 선원 현행법 체포

### "일 못한다"는 말에 범행 해경 살인미수 혐의 적용

선장을 흥기로 쪼려 살해하려 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선원 A(3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쯤 제주도 애월항에 정박중

인 72t급 목포조선적 안강양어선 K호에서 선장 B(54·목포)씨를 흥기로 쪼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선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선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고기 상자를 정리하던 중 선장인 B씨가 "일을 잘못한다"고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 풍랑주의보 속 서핑 즐긴 20대 경찰행

### 보드 빌려준 업자도 입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0대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22)씨와 B(24)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20분쯤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수상레저가 금지된 제주도 이호해수욕장에서 서핑

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상레저가 금지된 것을 알고도 A씨에게 돈을 받고 서핑 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수상 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완도→제주 여객선 화재

전남 완도를 출발해 제주로 들어오던 정기여객선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 2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8분쯤 완도항을 떠나 제주항으로 항해 중이던 2만263t급 여객선 실버클라우드호가 제주항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자체 진화됐으며 승객 270명과 선원 28명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 도교육청, 숙박형 수학여행 전면 취소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숙박형 수학여행'이 결국 전면 취소됐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각급 학교 조치 및 안내사항' 수립 결과 수학여행은 도외로 가거나 숙박을 할 수 없고, 도내에서 '비숙박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가 지속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병 위기 심각 단

계가 '경계' 단계로 내려갈 경우에는 '100명 미만 및 실외 활동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체험활동을 진행할 경우 전세버스는 한대에 3분의 2 인원으로 탑승해야 하며, 내부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하다.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쓴 상태로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식당을 방문할 경우에는 식사 전·

후 대화를 금지하고, 좌석은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또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뷔페는 이용 자체를 권고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학여행이 취소되면서 내년에는 1개 학교당 2개 학년까지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특성화고 6곳과 일반고 특성화고 3곳, 다자녀·저소득층 학생"이라며 "수련 활동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으로 1인당 4만5000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펄빅산, PAA, PGA, 바실러스, 왁스바실러스, 효소당밀, 발근제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 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한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승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 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 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닝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 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한그린:** 히토티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믹:**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스:** 히토티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고택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